

종려 주일 / 수난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PALM SUNDAY

주후 2022년 4월 1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41 장 “호산나 호산나” (통일 141)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29 번 종려주일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Luke) 1928-40	조문희 집사
찬 양 Anthem	“호산나, 호산나”	찬양대
설 교 Sermon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The Lord Needs It)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를 위한 이곳에”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208 장 “내 주의 나라와” (통일 246)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막연하기만 했고,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미숙한 수준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 11:6)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개역개정 **눅19:31-32**)

“If anyone asks you, ‘Why are you untying it?’ tell him, ‘The Lord needs it.’ Those who were sent ahead went and found it just as he had told them.” (NIV **Luke19:31-32**)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4/10 (주일)	4/11 (월)	4/12 (화)	4/13 (수)	4/14 (목)	4/15 (금)	4/16 (토)
	레14	레15	레16	레17	레18	레19	레20
본문	시17	시18	시19	시20,21	시22	시23,24	시25
	잠28	잠29	잠30	잠31	전1	전2	전3
	살후2	살후3	딤편1	딤편2	딤편3	딤편4	딤편5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성/금/요/일 특/별/예/배

고난주간 특새. (4/11월-4/15금 오전6:30)	주제: “십자가로 돌아가라”
성금요일 특별예배 (4/15금 오후7:30)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히4:14-16, 5:7-9)”

지난 주일(4/3) 말씀 –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11)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눅 10:29-37)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 가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하셨던 비유가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The Parable of Good Samaritan)’였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 흔히들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근거는 (바로) 그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마음(자비와 긍휼과 사랑) 때문이며, (이는) ‘강요된 윤리’이거나 ‘강요된 도덕’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즉, 우리도 (판약)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참된 이웃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묻기 보다는, 먼저 “고통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통해 권면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강요된 도덕이나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한 강요된 윤리가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2)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기꺼이 3)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